



성화론

성도를 향한 징벌

1 기도

2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142쪽)

3 말씀 읽기 이사야 29:1-2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4 말씀 이해하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징벌을 앞두고 한탄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빌론(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징벌에 대해서는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엇을 잘못했다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 혼낼지언정 - 그를 쫓아내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호11:8, 롬8:39).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범죄한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기 원하십니다(엡4:15). 그렇기에 그 자녀들이 범죄에 들어갈 때는 꾸짖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탈선과 멸망을 두고 보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도 타락한 유다를 바빌론(바벨론)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를 위하여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때에 기뻐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히12:7-9). 징계를 묵묵히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1-2절)

2.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에 사용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 성도가 범죄하여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4.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징계를 당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6 함께 하는 기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7 주기도문